

#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남윤자·이승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울산대학교 의류학과

## Comparison of perceived body size and actual body siz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women

Yun-Ja Nam · Seung-He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Ulsan University

(2000. 12. 22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perceived body size and actual body size between Korean and USA female college students of 18 to 26 year-old. Body measurements and survey were taken from August to September, 1998.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body measurements of the Korean women and US women. Among 20 body areas, except only head length and neck circumferences, American women had bigger sizes than Korean women.
- 2) Compared to US females, Koreans perceived their body sizes as bigger and were mo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ies than Americans.
- 3) Those who had thinner body sizes tended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ies.

**Key words:** perceived body size, actual body siz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cathexis, Korean and American female college students; 인지체형, 실제체형, 신체만족도, 한미여대생

## I. 서론

의복은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에 잘 맞고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의복 착용자가 의복을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도는 신체적 만족도와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체적 만

족도는 체형과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정재은, 1993). 특히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영상매체에 의한 시각적인 문화가 발달한 시대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매우 커졌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 있어서도 외모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고, 외모를 구성하는 요소인 신체적인 특징과 의복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은 영상문화세대로 불려질 만큼 시각적인 문화와 친숙하게 성장하였으므로 이상적인 체형이나 유행하는 의복

\* 이 논문은 1998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선정 학술연구비에 의한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등,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박재경·남윤자, 1999).

20대 여성의 경우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여, 3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가늘고 긴 체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김용숙, 1990; 박우미, 1993; 구양숙·추태귀, 1996; 植竹桃子, 1988)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유행 수용도도 높다.(정찬진·김옥진, 1988) 이는 20대의 여성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신의 신체나 의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신체인식과 신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젊은 여성들이 매우 마른 것을 이상형으로 삼으며,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중 인지체형이 신체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김용숙, 1990; 박우미, 1993; 구양숙·추태귀, 1996; 植竹桃子, 1988; Douty·Brannon, 1984; Lennon, 1988). 그러나,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심리학적 입장에서 행하여진 연구로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 인식도와 실제계측치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자세한 고찰을 하고 있지 않다.

여자들의 경우 신체이미지, 신체만족도와 자기존중감, 외모, 의복의 만족도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신체이미지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Zamarin, D. M., 1976) 또한 인종에 따른 체형의 차이를 밝히고 있는 연구는 있으나(와코루연구소, 1995)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신체만족도등이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 계측에 의한 실제체형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신체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행하여 두 나라 여대생의 인지체형의 차이를 밝히고 실제체형과 인식체형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실제체형과 인지체형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체형의 경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류업체의 기성복 생산 시 계측치와 선호되고 있는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과 학계에서의 의상 디자인 및 의복설계 연구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계측항목 및 설문항목

실제체형은 피험자들에 대한 직접 계측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인지체형과 만족도는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계측항목과 설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계측항목

계측항목은 <표 1>과 같으며 설문의 신체크기 인식 부위 중 목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와 대응되는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다리길이는 장골높이와 무릎높이로 계산되었으므로 계측항목은 모두 20항목이었다.

#### 2) 설문항목

설문항목은 신체에 대한 부위별 크기인식 평가 20문항(표 3)과 신체 만족도 평가 20문항(표 4)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에 대한 부위별 크기인식과 만족도 수준은 신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통, 팔, 다리, 목, 어깨 등의 길이 및 둘레 항목을 다양하게 선택하였다.

### 2. 자료수집

1998년 2월~3월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개발하고 계측항목을 선정한 후, 1998년 5월~6월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8~26세 여자 대학생 한국 83명, 미국 92명을 대상으로 인체계측과 설문조사를 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계측은 마틴 인체계측기를 사용하였으며, 인체계측항목의 선정은 KS A 7003을, 계측방법은 KS A 7004를 기준으로 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자료는 SPSS/WIN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신체의 실제 계측에 의한 실제체형, 신체에 대한 크기인식에 의한 인지체형, 신체에 대한 만족도등에 대하여 기초통계와 상관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 실제체형: 직접 계측으로 계측된 신체부위별 계측치에 의한 체형.

· 인지체형: 설문을 통해 5점척도(1=작다/가늘다, 5=크다/굵다)로 측정한 부위별 크기인식에 의한 체형.

· 만족도: 설문을 통해 5점척도(1=매우불만, 5=매우 만족)로 측정한 신체 부위별 만족도.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신체계측치에 의한 실제체형의 한미 비교

조사대상은 평균 연령이 한국 20.7세, 미국 22.3세이며, 18~26세의 연령분포를 가진 여자대학생 집단이었으며 신체계측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결과는 <표 1>과 같다.

두 집단의 신체계측치를 비교해 보면 등길이와 넓적다리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간에 0.05이상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머리수직길이(전두고)와 목밑둘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미국 여대생들의 신체계측치의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신체크기는 절대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키를 기준으로 각 계측치의 지수치를 구하여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지수치를 비교한 결과 목밑둘레와 머리수직길이, 등길이 세항목에서 한국 여대생집단이 크게 나와 목이 굵고 머리가 크며, 상반신이 긴 경향이 나타났다. 가슴둘레를 비롯한 둘레항목과 다리길이 등의 길이항목은 미국여대생이 크게 나타나 한국여대생보다 볼륨감이 있고 하반신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허리둘레는 한국의 경우 1.41, 미국의 경우 1.25이고, 가슴둘레/허리둘레는 한국 1.25, 미국 1.37로 한국 여대생의 경우는 하반신이 큰 엉덩이 우세형이며, 미국의 경우 상반신이 큰 가슴 우세형으로 나타났다.

두신지수는 한국 7.34, 미국 8.20로 키에 대한 머리

<표 1> 신체계측치에 의한 실제체형의 한미 비교

계측항목	한국		미국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60.78	4.61	164.61	6.70	-4.45***
목밑둘레	37.44	1.79	36.48	3.90	2.08*
가슴둘레	80.33	4.18	87.10	6.11	-8.46***
허리둘레	64.50	3.88	69.49	6.99	-5.92***
배둘레	76.73	5.25	81.01	8.79	-3.96***
엉덩이둘레	90.73	4.44	95.46	6.59	-5.61***
윗팔둘레	25.23	2.35	26.50	2.79	-3.24***
아래팔둘레	21.41	1.77	22.65	1.53	-4.96***
손목둘레	14.47	0.75	15.64	1.48	-6.70***
넓적다리둘레	52.75	3.29	54.11	7.28	-1.62
장딴지둘레	33.86	1.99	35.13	3.30	-3.13**
발목최소둘레	20.39	1.83	21.64	2.11	-4.18***
등길이	38.26	1.79	38.35	2.84	-0.27
엉덩이길이	21.30	2.39	22.38	2.15	-3.16**
어깨끝점사이길이	39.38	1.91	40.68	2.47	-3.85***
소매길이	53.80	2.98	55.58	5.32	-2.77**
머리길이	21.93	0.97	20.64	1.56	6.62***
다리길이	84.57	3.70	92.53	4.80	-12.37***
몸무게	51.44	4.77	59.37	8.93	-7.43***

\*p≤0.05 \*\*p≤0.01 \*\*\*p≤0.001

\* 다리길이=(장골높이-무릎높이)×0.93

크기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Rohrer's Index는 한국 여대생이 작게 나타나 미국 여대생보다 마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에 의한 인지체형의 한미 비교

1) 신체부위별 크기인식

자신의 신체에 대한 크기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목, 어깨, 몸통, 팔, 다리의 각 부위별 둘레와 길이, 그리고 키와 몸무게에 대하여 주관적인 신체크기인식을 알아보았다.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의 평균, 최빈값, 실제 계측치와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으며 신체부위별로 '가늘다-굵다', '짧다-길다'의 크기인식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여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을 고찰하였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한국의 경우

〈표 2〉 신체계측 지수치의 한미 비교

계측항목	한국		미국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60.78	4.61	164.61	6.70	-4.45***
목밑둘레/키	0.23	1.13E-02	0.22	2.47E-02	3.86***
가슴둘레/키	0.50	2.76E-02	0.53	4.11E-02	-5.71***
허리둘레/키	0.40	2.53E-02	0.42	4.36E-02	-3.99***
배둘레/키	0.48	3.42E-02	0.49	5.53E-02	-2.22*
엉덩이둘레/키	0.56	2.87E-02	0.58	4.05E-02	-3.01**
윗팔둘레/키	0.16	1.50E-02	0.16	1.79E-02	-1.69
아래팔둘레/키	0.13	1.12E-02	0.14	1.10E-02	-2.72**
손목둘레/키	0.09	4.68E-03	0.09	1.04E-02	-4.30***
넓적다리둘레/키	0.33	2.10E-02	0.33	4.55E-02	-0.17
장딴지둘레/키	0.21	1.28E-02	0.21	1.96E-02	-1.16
발목쇠소둘레/키	0.13	1.15E-02	0.13	1.33E-02	-2.53*
등길이/키	0.24	9.90E-03	0.23	1.46E-02	2.68**
엉덩이길이/키	0.13	1.43E-02	0.14	1.22E-02	-1.76
어깨끝점사이길이/키	0.25	1.11E-02	0.25	1.62E-02	-1.15
소매길이/키	0.33	1.47E-02	0.34	3.03E-02	-0.90
머리길이/키	0.14	6.06E-03	0.13	1.01E-02	8.75***
다리길이/키	0.53	1.44E-02	0.56	1.89E-02	-14.13***
가슴둘레/허리둘레	1.25	5.15E-02	1.26	7.98E-02	-1.16
엉덩이둘레/허리둘레	1.41	5.88E-02	1.38	9.50E-02	2.42*
두신지수	7.34	0.32	8.02	0.70	-8.32***
R hrer Index	1.24	0.113	1.33	0.22	-3.69***

\*p≤0.05 \*\*p≤0.01 \*\*\*p≤0.001

2.39~4.02, 미국의 경우 2.32~3.74 에 분포되어 있다. 가슴둘레와 다리길이, 어깨각도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한국여대생들이 미국여대생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넓적다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양국 모두 최빈값 4로 특히 크게 인식하고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여대생의 경우 한국 여대생보다 크기 인식이 '보통이다'의 항목에 편중되어 나타나 특별히 어느 부위를 '크다/굵다' 혹은 '작다/가늘다'의 인식이 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의 경우 하반신둘레 항목인 배둘레, 엉덩이둘레, 넓적다리둘레 등은 평균 3.4이상이고 최빈값 4로 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리길이와 가슴둘레는 평균 2.75, 2.53, 최빈값 2로 짧고 가늘다고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신체부위별 크기인식도를 살펴보면 상체보다 하체에, 말단보다 중심부 쪽의 둘레항목에서 '굵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은 신체전체에 대한 크기인식분포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신체전체에 대한 크기인식은 한국 3.12, 미국 2.78이며 최빈값은 모두 3이다. 그러나 그 분포에 있어서 미국은 '보통이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매우뚱뚱하다'는 거의 분포하지 않는데 반해 한국은 '보통이다'와 '뚱뚱하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öhler's Index 값이 오히려 한국이 작았던 것과 관련지을 때 한국 여대생의 비만인식이 더욱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실제체형과의 상관관계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실제체형의 계측치간의

〈표 3〉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에 의한 인지체형의 한미 비교

신체부위	한국			미국			t-test
	평균	최빈값	실제체형과의 상관계수	평균	최빈값	실제체형과의 상관계수	
키	2.64	3	0.846***	2.88	3	0.458***	-1.53
목길이	3.13	3	-	2.88	3	-	2.42*
목둘레	2.88	3	0.341**	2.70	3	-0.183	1.72
가슴둘레	2.53	2	0.567***	2.71	3	0.523***	-1.05
허리둘레	2.92	3	0.618***	2.73	3	0.218*	1.36
배둘레	3.40	4	0.578***	2.77	3	0.275**	4.80***
엉덩이둘레	3.87	4	0.590***	3.46	4	0.294**	3.01**
위팔둘레	3.37	4	0.531***	2.96	3	0.297**	2.92**
아래팔둘레	2.82	3	0.503***	2.65	3	0.409***	1.38
손목둘레	2.39	2	0.304**	2.32	2	0.301**	0.53
넓적다리둘레	4.02	4	0.601***	3.74	4	0.184	2.28*
장딴지둘레	3.65	4	0.465***	3.15	3	0.271**	3.63***
발목둘레	3.04	3	0.251*	2.64	3	0.211*	2.70**
등길이	3.13	3	0.241*	2.86	3	0.183	3.01**
엉덩이길이	3.41	3	0.219*	2.97	3	0.017	4.50***
어깨너비	3.07	4	0.378***	2.90	3	0.146	1.22
팔길이	3.14	3	0.651***	2.96	3	0.265*	1.54
다리길이	2.75	2	0.605***	2.83	3	0.519***	-0.53
몸무게	3.30	3	0.686***	3.24	3	0.458***	0.45
신체전체	3.12	3	0.731**	2.78	3	0.530**	2.32*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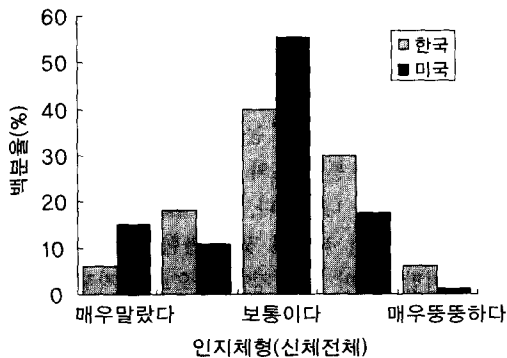
상관을 고찰하였다. 목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동일 계측항목과의 상관을, '신체전체' 항목은 Rohrer's Index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한미 여대생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으

며 한국 여대생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미국 여대생보다 상관계수가 크게 나타나 실제 신체크기가 신체크기인식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크기인식과 신체계측치간의 상관분석 결과 한국여대생은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넓적다리둘레등 12개 항목에서 0.46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미국여대생의 경우 키와 가슴둘레, 다리길이, 몸무게의 4항목에서만 0.458~0.766의 높은 상관을 보여 이들 부위는 실제 신체크기에 의해 크기를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목은 한국 여대생의 경우보다 상관관계가 낮거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실제 신체치수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신체전체에 대한 크기인식 분포의 한미 비교

### 3. 신체부위별 만족도의 한미 비교

#### 1) 신체부위별 만족도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최빈값, 실제체형과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신체부위별로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만족도 정도를 고찰하였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한국의 경우 1.81~3.12, 미국의 경우 2.57~3.75에 분포하고 있으며 '신체전체' 항목을 제외한 19항목의 만족도 합계는 한국 51.27, 미국 65.68로 미국의 여대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 최빈값을 보면 한국은 주로 2와 3이나 미국은 3과 4가 많이 나타나 한국여대생들은 신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미국여대

생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족도에 대한 t-test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0.05이상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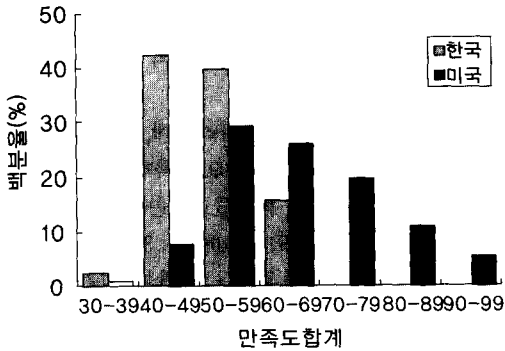
한국여대생의 경우 넓적다리둘레, 엉덩이둘레등 하반신둘레는 만족도 1.81, 1.99로 특히 불만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목밑둘레, 손목둘레, 소매길이, 목길이항목은 만족도가 3.0에서 3.12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특별히 만족하거나 불만이 있는 항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여대생의 경우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넓적다리둘레, 엉덩이둘레는 만족도 2.48, 2.57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항목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만족도 합계를 10단위의 구간으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미국여대생의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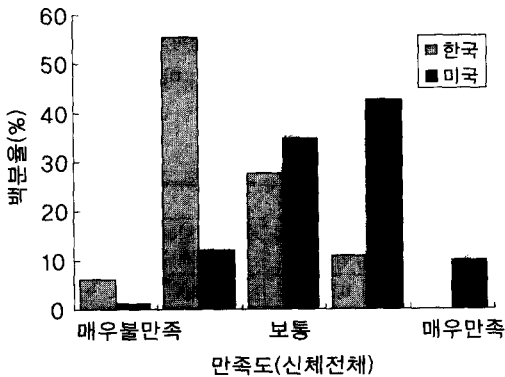
<표 4> 신체부위별 만족도의 한미 비교

신체부위	한국				미국				t-test
	평균	최빈값	실제체형과의 상관계수	인지체형과의 상관계수	평균	최빈값	실제체형과의 상관계수	인지체형과의 상관계수	
키	2.31	2	0.553**	0.698**	3.48	4	0.521**	0.467**	-6.88***
목길이	3.00	3		0.609**	3.66	3		-0.074	-5.99***
목둘레	3.10	3	-0.100	-0.431**	3.62	3	-0.185	-0.179	-4.81***
가슴둘레	2.42	3	0.353**	0.597**	3.13	4	0.080	0.316**	-4.30***
허리둘레	2.73	3	-0.402**	-0.603**	3.12	4	-0.287**	-0.577**	-2.48*
배둘레	2.25	2	-0.4581**	-0.633**	3.02	4	-0.474**	-0.394**	-5.40***
엉덩이둘레	1.99	2	-0.427**	-0.603**	2.57	2	-0.306**	-0.524**	-4.08***
위팔둘레	2.42	2	-0.360**	-0.699**	3.16	4	-0.128	-0.449**	-4.85***
아래팔둘레	2.96	3	0.365**	-0.494**	3.58	4	-0.163	-0.285**	-5.37***
손목둘레	3.12	3	-0.285**	-0.469**	3.75	4	-0.077	-0.337**	-5.26***
넓적다리둘레	1.81	1	-0.218*	-0.521**	2.48	2	-0.072	-0.560**	-4.07***
장딴지둘레	2.06	1	-0.289**	-0.608**	3.07	4	-0.351**	-0.568**	-6.26***
발목둘레	2.71	3	-0.129	-0.575**	3.38	4	-0.129	-0.456**	-4.62***
등길이	2.89	3	-0.152	-0.599**	3.54	3	0.268**	0.001	-5.99***
엉덩이길이	2.53	3	-0.024	-0.469**	3.42	3	0.264*	-0.113	-7.57***
어깨너비	2.67	3	-0.087	-0.541**	3.48	3	0.019	-0.351**	-6.34***
팔길이	3.05	3	0.340**	0.602**	3.65	4	0.252*	0.331**	-5.20***
다리길이	2.35	2	0.499**	0.712**	3.23	4	0.315**	0.478**	-5.23***
몸무게	2.10	2	-0.514**	-0.688**	2.83	3	-0.236*	-0.612**	-4.64***
신체전체	2.43	2	-0.388**	-0.297**	3.48	4	-0.316**	-0.526**	-8.38***
만족도 합계 (신체전체값 제외)	51.27				65.68				-9.21***

\*p≤0.05 \*\*p≤0.01 \*\*\*p≤0.001



[그림 2] 만족도 합계 분포의 한미 비교



[그림 3] 신체전체에 대한 만족도 분포의 한미 비교

도 합계의 평균은 65.68이고 39점에서 98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한국여대생의 경우 평균 51.27이고 36점에서 66점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은 '신체전체' 항목의 만족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미국여대생은 '만족'의 분포가 큰 반면, 한국여대생은 '불만족'의 분포가 커 신체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미국여대생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신체부위별 만족도와 실제체형과의 상관관계

한미 여대생의 만족도와 실제체형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결과를 비교해보면 한국 여대생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미국 여대생보다 상관계수가 크게 나타나 실제 신체크기가 신체만족

도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만족도와 신체계측치간의 상관분석 결과 한미여대생 모두 키, 소매길이, 다리길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신체 계측치가 크고 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장딴지둘레, 몸무게 등은 음의 상관을 보이고 있어 가늘고 적게 나갈수록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둘레의 경우는 한미 여대생의 특징이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항목으로 한국여대생의 경우는 신체 계측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미국 여대생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슴둘레가 크거나 작거나에 별로 영향을 받지않고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부위별 만족도와 인지체형과의 상관관계

한미 여대생의 만족도와 인지체형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미 여대생 모두 키, 가슴둘레, 소매길이, 다리길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신체계측치가 크고 길다고 인지할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반대로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장딴지둘레, 몸무게 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가늘고 적다고 인지할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목둘레, 등길이, 엉덩이길이, 목길이의 경우 한국여대생의 경우만 음의 상관을 보이고, 미국여대생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항목에 한국여대생들이 좀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대한 불만이 인지체형에 나타나게 됨으로서 신체만족도와 인지체형과의 상관관계가 실제체형과의 상관관계보다 한미 여대생 모두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 신체만족도에 실제체형보다 인지체형이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체계측치와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을 조사하여 실제체형과 인지체형과의 차이를 비교 고

찰하고 각각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실체체형의 경우 한국 여대생이 미국여대생과 비교하여 목이 굵고 머리가 크며, 상반신이 길고 하반신이 짧은 체형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슴둘레를 비롯한 들레항목과 다리길이 등의 길이항목은 미국 여대생이 크게 나타나 한국여대생보다 볼륨감이 있고 하반신이 긴 체형으로 나타났다.

인지체형의 경우 미국여대생은 한국 여대생보다 크기인식이 '보통이다'의 항목에 편중되어 나타나 특별히 어느 부위를 '크다/굵다' 혹은 '작다/가늘다'의 인식이 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지체형을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의 경우 하반신둘레 항목인 배둘레, 엉덩이둘레, 넓적다리둘레 등은 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리길이를 가슴둘레는 짧고 가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만족도와 인지체형과의 상관관계가 실제체형과의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나 신체만족도는 실제 자신의 체형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하는 인지체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과 미국의 두 세계 대학에서 군집표집에 의해 선정된 자료로써 전체 모집단에 적용시키는데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이 모두 들레항목에 불만족하며, 특히 한국 여대생의 경우 마르고 긴 체형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류업계의 기성복 생산 시 실제 신체 계측치와 선호되고 있는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학계에서의 의상 디자인 및 의복설계 연구 시에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접목시켜 연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정찬진·김옥진(1988), 의복의 유행스타일 수용과 선택기준 및 유행 정보원의 활용과의 관계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2(3), 351-361.
- 김용숙(1990),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77-189.
-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구양숙·추태귀(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 植竹桃子(1988), 衣服設計の立場からみた肥り癯せの意識, 日本家政學會誌, 39(7), 711-723.
- 정재은(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옥인(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 체형과 실제 체형과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p. 153.
- 조지숙·김경연(1994),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및 신체상왜곡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부산대 가정대학 연구보고 20집, 15-23.
- Douty, H. I., & Brannon, E. L.(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22-137.
- Lennon, S. J.(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6-203.
- 김정숙(1984),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숙자(1986), 의복행동과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및 체격과의 관계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0(2), 37-50.
- 정삼호·강혜원(1988),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가정문화논의, 2, 61-82.
- 大矢愛美·中川早苗(1989), 女子學生の身體に對する意識と着裝行動との關係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0(11): 574-581.
- 박우미·고유미(1994),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착의행동과의 관계연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주대 민족문화예술 연구소 논문집, 3, 105-124.



- 16) 이영륜·강혜원(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17-24.
- 17) 정삼호·강혜원(1991),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I) -선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103-113.
- 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7),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 국립기술품질원
- 19) 강병서·김계수(1997), 통계분석을 위한 SPSSWIN Easy. 법문사
- 20) Labat, K. L., & Delong, M. R.(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8(2), 43-48.
- 21) 岡田宣子(1988), 日本人成人女子にみられる身體形質の近代化と衣生活意識との關聯性, *日本家政學會誌*, 39(7), 699-710.